



생성형 AI의 진정한 힘은 '지식을 발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AI는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기술의 확산은 불균형적이고 느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로 대기업과 기술 중심 조직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신호는 아니다. 과거에도 발전기의 산업적 전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실현되었고, 그 속도는 작업 방식과 공간 구조가 AI에 맞게 재구성되면서 점점 빨라질 것이다.

결국 생성형 AI는 단지 '지금 하는 일을 더 빨리 하는 도구'가 아니다. AI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변화이며, AI가 생산성의 일시적 불꽃이 아니라 구조적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why-ai-could-be-a-productivity-dynamo/>